

# 2006년 UNCTAD 최빈개도국 보고서

UNCTAD 사무국이 7.20 발표한 2006년도 최빈개도국 보고서(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6 : Developing Productive Capacities)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 I. 핵심요지

※ 동 보고서는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노력에 있어 생산능력 배양이 그 중심에 서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① LDC 관련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 개발목표 진전현황 검토, ② LDC의 생산능력 배양과 관련한 동향, ③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 분석에 이어 ④ 정책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상기 보고서는 UNCTAD 홈페이지([www.unctad.org](http://www.uncta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보고서 Overview 부분은 별첨 송부함.

## 1. 개 관

■ 2004년 LDC 전체는 평균 실질경제성장을 5.9%를 달성하여 20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 성과를 거두었고, 2000년대 들어서 원조, 부채탕감, 시장접근 제공 등에 있어 공여국들의 적극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LDC의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진전의 관건은 생산기반 구축 여부에 달려있음.

## 2. LDC의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한 동향 및 생산적 고용의 필요성

■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되는 자본축적, 구조적 변화, 노동생산성, 무역,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음.

① 물질 자본축적 및 인적자원 개발 부족, 저축율 부족, 부족한 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FDI나 ODA의 국내민간투자 촉진이나 국

내자본축적 확대 기능 미약 등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2000-2003년 농업, 산업 및 서비스의 GDP 대비 비중이 각각 33%, 26%, 42%를 차지하는 등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③ LDC와 일반개도국 및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④ 2002-2003년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고 1차산품이 LDC 상품수출의 70%를 차지하며, 낮은 기술수준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된 제조업품 수출도 일부 LDC에 집중되어 있음.

⑤ LDC, 일반개도국, 선진국간 매우 큰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인적자원 부족은 LDC에서의 기술능력 배양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거의 대부분의 LDC에서 노동공급 증가율과 자본축적·기술진보 비율간의 격차가 커 노동생산성은 낮으며 실업이 만연하고 있고, 농업의 노동인력 흡수능력이 제한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0-2010년간 89백만의 경제인구 증가중 49백만이 비농업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적 노동 흡수(productive labor absorption)가 필요함.

### 3. 생산능력 개발 관련 제약요인

■ 물적 인프라 부족, 기업·금융·지식 분야 취약성, 수요측면의 제약이 LDC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① 대부분의 LDC가 운송,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LDC, 일반개도국, OECD 국가간 인프라 격차가 크며, 계속 확대되고 있고, LDC의 인프라 부족은 기존 시설의 관리부족과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함.

② 기업이 정신의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 및 제도도 중요하나, 대부분 LDC가 기업, 금융시스템, 지식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③ 경제성장에서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내수요의 부진이 대부분 LDC의 생산능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 4.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정책

■ 따라서, 생산능력 배양이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노력의 중심이 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함.

①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및 원조 확대

-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민간의 자본 접근 확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 금융, 지식 분야의 제도적 취약성 극복
- ③ 생산능력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수요측면 고려

## II. 관찰 및 평가

- 보고서는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과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하여, LDC 정책결정자, 공여국, 관련 국제기구 등에게 LDC 개발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LDC 상품에 대한 특혜 시장접근, ODA 확대, Aid for Trade 등 지원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체적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
  - 생산능력 제약요인의 하나로 인프라, 기업·금융·지식 분야의 취약성 등 공급측면 이외에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급능력 발전과 국내수요간의 선순환 구조 및 cumulative causation을 강조
  - 교역재 이외에도 비교역재 분야의 발전을 강조하고 이들 요소의 동적인 연관관계를 강조
  - 농업이 국내수요 창출 등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도, 노동공급 증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비농업 분야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의 필요성을 강조

- 최빈개도국 보고서는 무역개발보고서, 투자보고서와 함께 UNCTAD의 주요 보고서의 하나로 LDC의 개발전략 및 공여국들의 대 LDC 개발원조 및 무역정책,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행 등과 관련하여 주요 reference의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53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최빈국 의제 논의, 금년 유엔총회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 행동계획(POA) 이행 중간점검시에도 주요 배경문서의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LDC 개발원조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동 보고서의 주요통계, 사례연구, 분석 및 정책권고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 주요 제약요인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토대로 동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LDC 개발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 모색 등

## III. 보고서 주요 내용

### 1.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 개발목표 진전

## 가. 최근의 경제동향 : 보고서 I.1장

- 2004년 LDC 전체의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5.9%로 지난 20년이래 최고의 경제성장 성과를 시현함.
  - 석유 비수출국 11개국 포함 15개 LDC가 6%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 달성
-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LDC간 경제성장 격차의 확대 추세도 지속됨.
  - 데이터가 있는 46개 LDC중 15개 LDC에서 2004년 1인당 실질 GDP가 정체하거나 감소
- 성장의 지속가능 여부는 ODA 및 FDI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고, 국내저축 증대, 구조적 변화, 생산능력 배양 및 생산다변화에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음.
  - 그러나, ODA 증가의 많은 부분이 부채탕감 및 긴급지원에 해당(2003년 LDC에 대한 총 순ODA의 35%, 2004년 27%)하고, FDI 유입은 주로 자원채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 나.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UNLDC III)

### 개발목표 진전 : 보고서 I.2장

- 2001년 제3차 유엔최빈국회의의 목표 달성과 관련, 주목할 만한 사항은 1990년대에 비해 원조, 부채탕감, 시장접근 제공에 있어 공여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임.

- 2004년 LDC에 대한 원조액 249억불로 1999년이래 2배 증대, 일부 LDC에 대한 부채탕감,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부여, 원조의 언타이드화(untying of aid) 등

- 그러나 원조액은 UNLDC III 행동계획(POA : Program of Action)의 GNI 대비 원조 목표에 미달하고, 최근의 원조증가는 부채탕감, 긴급지원의 영향이 크고 아프가니스탄, 콩고(DRC)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프라 및 생산적 분야에 비해 사회 분야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도 강화되고 있음.

- 전체 LDC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은 증가 추세이며, 석유 및 무기류를 제외하면 선진국의 LDC로부터의 총수입액중 DFQF 수입 비중은 1996년 77%에서 2003년 72%로 감소

- 46개 LDC중 6개국만이 2001-2004년간 POA 목표인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39개 LDC중 10개국만이 GDP 대비 투자 25% 목표를 달성했음.

- 18개 LDC가 2001-2004년 연간 1인당 GDP 성장률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함.

- 인간개발 목표와 관련, 의무교육, 교육에서의 성평등, 물 접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빈곤, 아동사망을 등에서는 진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 경제적·사회적 진전의 관건은 LDC의 생산 기반 구축 여부에 달려 있음.

## 2. 생산능력 개발

### 가. 생산능력의 정의, 개발방안 및 중요성

#### : 보고서 II.1장

- 보고서는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결정하고 국가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자원, 기업 능력 및 생산연계”를 생산능력(productive capacities)으로 정의함.
- 생산능력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변화의 상호연관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개발됨.
- 생산능력의 개발과 완전한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므로써 LDC는 보다 효과적인 빈곤경감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공여국들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나. 생산능력 개발과 관련한 동향

#### : 보고서 II.2-3장

#### 1) 자본축적 : 보고서 II.2장

- 1990년대보다는 개선되었으나, 1999-2003년 LDC 전체의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은 GDP의 22%에 불과하고 국내 민간투자는 특히 취약함.
  - 보고서상 fast catch-up 시나리오에 필요한 35%에 크게 미달하며, slow catch-up 시나리오에 필요한 28%에도 미달
- 인적자본 분야에서도 2000년 LDC 성인인구

의 평균 취학년수는 3년에 불과하여 일반 개도국의 1960년대 수준이며, 고등교육(취학년수 13년 이상)을 받은 LDC 출신 “high-skill workers” 5명중 1명이 OECD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두뇌유출도 심함.

- 1999-2003년간 LDC의 국내저축은 GDP 대비 13.6%에 불과하여 자본유입액을 합하더라도 양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임.

- ODA를 제외한 저축(genuine savings without ODA grants)으로 측정한 LDC의 국내 생산기반(productive resource base)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

- 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수준도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광물자원이 없는 국가일수록 더함.
  - 2000-2003년간 일반개도국의 국민 1인당 정부소비지출은 186불이나, LDC 국가는 26불에 불과

- FDI가 국내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미미하며, ODA도 국내자원조달(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이나 국내자본축적 확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원조의 내용에서도 물적자본 형성이나 생산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1992-1995년 기간 및 2000-2003년 기간에 걸쳐 공여국들의 LDC에 대한 원조중 경제적 인프라나 생산관련 분야에 대한 ODA commitment의 비중이 45%에서 26%로 축소

## 2) 구조적 변화 : 보고서 II.3장

- 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으나 LDC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래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었음.
  - LDC에서 농업의 비중은 1980-1983년 GDO의 37%에서 2000-2003년 33%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산업 및 서비스의 비중은 동일기간중 각각 GDP 대비 23% 및 39%에서 26% 및 42%로 증가
  - 산업 부가가치 증가의 상당부분은 소수의 LDC에 집중되며 LDC에서 가장 증대한 산업분야는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광업, 석유, 수력발전 분야
- LDC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다소 증가(modest increase)하였으나, 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방글라데시가 1990-1993년에서 2000-2003년 기간중 LDC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일 기간중 36개 LDC중 19개 LDC에서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

## 3) 노동생산성 : 보고서 II.3장

- 2002-2003년간 평균적으로 LDC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일반개도국의 1/5, 선진국의 1/94 수준이며,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 2000-2003년간 LDC의 노동생산성은 1980-1983년에 비해 단지 12% 증가하였으나, 여타 개도국의 경우 55% 증가
- 2000-2003년간 농민 1인당 생산성은

1980-1983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비농업 분야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9% 감소함.  
- 4/5의 LDC에서 비농업분야 노동생산성 감소

## 4) 무역 (trade integration) : 보고서 II.3장

- LDC 인구는 세계인구의 10.6%를 차지하나 2000-2003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LDC 생산품을 모두 수출하더라도 LDC가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할 비중은 2.4%에 불과함.
- 1차산품이 2002-2003년간 LDC 수출의 2/3를 차지하며, LDC 수출상품중 제조업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1차산품에서 제조업품으로의 수출품목 전환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매우 느리게 진행중임.
  - 1980-1983년 LDC 상품수출중 제조업품이 1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는 약 1/3 차지
- 제조업품은 의류(garments) 등 낮은 기술수준의 노동집약적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재 섬유 의류협정의 종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수출품 생산은 국내생산 시스템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여타 국내경제와의 연계도 미약함.
- 제조업품 수출은 소수의 LDC에 집중되어 있음.

- 1차산품 수출과 관련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upgrading도 매우 부족함.
- LDC의 광물·금속 수출중에서 가공 광물·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1983년 23%에서 2000-2003년 18%로 축소
- 주요한 긍정적인 진전은 비가공농산물 수출중 static한 상품에서 어류·수산물 등 dynamic한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임.
- UNCTAD는 수요탄력성이 1 이상인 상품을 dynamic한 상품이라고 정의하며, 가장 중요한 dynamic한 상품은 어류·수산물

#### 5) 기술발전 : 보고서 II.3장

- 산업구조적 변화의 부족, 느린 생산성 증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LDC 상품수의 제한 등은 기술습득과 혁신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LDC, 일반개도국, 선진국간에 매우 큰 기술 격차가 존재함.
- 2003년 GDP 대비 R&D 지출비중은 LDC가 0.2%, 기타 개도국은 0.3%, OECD 회원국은 2.2% 등
- 2000-2003년 기간중 LDC 기계장비 수입(import)의 대GDP 비중은 3%로 일반개도국의 4.8%보다 낮으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격차가 확대추세에 있음.
- LDC에서의 인적자원 부족은 기술능력 배양을 어렵게 함.

- 2001년 중등교육(secondary enrollment)에서 기술·직업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LDC가 2.6%, 일반개도국은 10.4%, OECD 회원국은 25%
- 20-24세 인구중 고등교육(tertiary enrollment) 비중은 LDC가 6%, 일반개도국이 23%, 고소득 OECD 국가 57%

#### 다. 노동 공급대비 생산적 고용의 부족

##### : 보고서 II.4장

- 거의 대부분의 LDC에서 노동공급 증가율과 자본축적·기술진보 비율간의 격차가 커 대부분의 노동자가 빈약한 장비, 교육, 인프라에서 raw labour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생산성은 낮으며, 실업이 만연함.
- 2000년 LDC의 총노동인구는 312백만명으로 1990년에 비해 71백만이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89백만이 증가 예상
- 지난 25년간 LDC에서 농업이(agricultural land expansion) 노동인구 흡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임.
- land degradation, 1인당 경작지 감소, 소수에게 경작지 집중 등
-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농업 이외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음.
- 2000년 71%의 노동인구가 농업에 종사하

고, 인구의 75%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나, 도시화율은 1980년 17%에서 2000년 25%로 증가

- 2000-2010년간 89백만의 경제인구 증가 중 49백만이 비농업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2010년은 비농업분야 구직인구가 농업분야 구직인구를 앞지르는 첫 번째 decade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예상은 방글라데시의 영향이 크나, 50개 LDC중 24개국에서 비농업분야 경제인구 증가율이 농업분야 경제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전망
- 상기 경향은 빈곤경감을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적 노동 흡수(productive labor absorption)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라. 생산능력 개발의 제약요인

### : 보고서 II.5-7장

#### 1) 물적 인프라 : 보고서 II.5장

- 대부분의 LDC가 운송, 통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에너지 격차(energy divide)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기술격차 해소에 있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LDC, 일반개도국, OECD 국가간 인프라 격차가 크며, 계속 확대되고 있음.

- 1999년 LDC의 1인당 도로율(stock of roads per capita) 및 도로포장율은 1990년에 비해 감소

- LDC의 인프라 부족은 기존 시설의 관리부족과 신규투자 부족에 기인함.
  - 공공투자 감소, ODA에서의 인프라 지원 비중 감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저조 등에 기인
  - 2003년 인프라에 대한 ODA commitment는 1992년에 비해 51% 감소
- LDC와 일반개도국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증대 및 특히 아프리카 LDC에서의 1990-2003년간 인프라 관련 원조 감소 추세의 반전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시 농촌지역 인프라와 district-level links, 대규모 국가적 인프라, 국경간 지역 인프라의 동시 개발이 필요하며, LDC와 기타 개도국간의 전력격차(electricity divide) 해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2) 제도적 취약성 : 보고서 II.6장

-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good governance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의 근간이 되는 민간분야 및 제도도 중요함.
- 대부분 LDC가 기업, 금융시스템, 지식시스템의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 중소기업 발달 부족, 금융시장은 소규모 비공식 부문과 은행으로 이중적 구조, 지식시스템도 전통적 지식과 근대적 지식의



이중 시스템 구조

- LDC의 GDP 대비 민간분야에 대한 대출 비중은 15%로 다른 저·중소득 국가의 60%에 비해 1/4에 불과하며 많은 LDC, 특히 아프리카 LDC에서의 금융자유화 이후 동 비중은 감소하여 금융자유화는 생산적 투자 증대에 실패
- 연구기관 등 지식 창출 기관은 지식 활용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대기업이 자본형성, 혁신, 규모의 경제, 학습 효과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 하청관계 발전, 클러스터링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새로운 sources of financing 발굴, 민간분야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는 성공사례로부터 교훈 도출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loan guarantee scheme, 공공개발은행, value-chain lending, 시장에 기초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 대부분의 LDC에게 있어서 국내 지식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 외국기술수입(라이센싱, FDI, turnkey plants, 자본재수입), 기술인력의 이동성 등 세가지가 가장 중요함.

### 3) 수요 측면의 제약 : 보고서 II.7장

■ 국내 수요의 확대가 LDC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성장에서 국내수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내수요의 부진이 대부분 LDC의 생산능력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

■ 농업이 LDC의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수요는 농업분야의 실적과, 농업과 다른 경제분야와의 연계에 의존함.

- 비교역재 분야에서의 국내수요 진작이 없으면 농업 이외 분야에서의 생산적 고용인력 흡수는 어려움

■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도 중요하며, 특히 국내수요에는 수입요소(import conten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이 중요함.

- LDC의 수출구조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 필요

## 3. 정책적 의미(policy implications)

: 보고서 II.8장

### 가. 핵심 메시지

■ 생산능력 배양이 LDC의 경제성장과 빈곤경감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나. 패러다임 전환 : 필요성과 성격

## 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빈곤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실업에 기인하므로 빈곤경감을 위해서는 생산적 고용기회 창출이 필요함.
-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 이외 분야에서 고용기회를 찾고 있는데 많은 LDC의 경우 농업 이외 분야에서 노동력의 생산적 분야로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990년대의 개혁정책은 기존 capacity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했으나, capacity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았음.
-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발전,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생산능력 발전과 수요확대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함.

## 2) 패러다임 전환의 성격

- 거시경제정책은 재정안정에서 경제성장, 투자, 고용 촉진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
- 1차, 2차, 3차 산업분야의 상호보완적 상관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해야 하며, 지대추구 행위를 생산적 기업가정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무역 자체보다 개발에 목적을 두고 무역과 개발의 관계를 보아야 하며, 생산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면서 국제무역이 어떻게 자본축적, 기술변화, 구조적 변화, 고용창출 및 빈곤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야 함.

## 다. 정책옵션 및 조치 (상기 “2.라”항에서도 생산능력 개발 제약요인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LDC의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정책은 자본축적, 기술진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원조 감소 추세에 반전이 필요하며, 전력 인프라 격차 극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연계, 민간의 자본접근 확대,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금융·지식 분야의 제도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
- 생산능력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수요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발굴 및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 노력이 필요
  - 교역재뿐만 아니라 비교역재에서도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양 분야간 동적 연계가 필요

## 라. 관리체제(governance) 이슈

- 실용적 발전 국가(pragmatic development State)의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필요하며,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정부역

할의 최소화가 아니라 정부능력의 배양이 필요함.

- good governance를 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점진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게 신축성이 필요함.
- LDC에 대한 원조확대, 부채경감, 무역시장 접근 제공은 LDC의 생산능력 배양 노력과 연계되어야 하며, LDC에 대한 국제지원과 관련한 정책혁신이 필요함.
- 물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육성, 국내 금융 및 지식 시스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d for trade와 관련한 포괄적 접근

- FDI 등을 통한 공급능력 지원과 병행한 시장접근 확대
- TRIPs 관련 규범을 activate하여 LDC에 대한 기술이전
- 민간분야 개발 및 국내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등

[자료: 주제네바대표부]